

# 駕島貝塚 新石器·青銅器時代 生計樣式的變化相

李俊貞 (서울대학교 박물관)

## I. 서론

고고학에 있어서 생계 양식에 대한 연구는 자연 유물과 인공 유물에 대한 다양한 분석법에 의거하여 과거 인간의 식생활을 복원하는 분야로서 고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과거 식생활의 복원 작업은 단순히 당시 食料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인간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이용 양상 및 적응 방식을 밝히고 나아가 개별 유적의 경제적 기능, 유적간의 기능적 상호 관계 및 이동 방식,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복원까지를 아우르는 과거 인간의 행위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sup>1)</sup>

한국 고고학에 있어서 생계 양식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꾸준한 분석과 연구의 축적으로 이제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여 식물 자료, 동물 자료, 토양 자료 등 생계 양식을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자연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각 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공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분석 결과도 하나의 자료 제시로 그치고 이를 토대로 고고학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신석기 시대 남해안 지역의 생계 양식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sup>2)</sup> 이에 반하여 서해안, 동해안 등 여타 해안 지역 및 내륙 지역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였으며, 청동기 시대 이후에 대해서는 농경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논의 이외에는 전반적인 생계 양식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였다.<sup>3)</sup> 다행히 최근 10여 년간 서해안에서 패총 유적

1) 이러한 차원의 생계 경제 연구를 한반도의 고고학 사례에 적용시킨 좋은 예로 암사동 유적을 대상으로 한 內山純藏(2001)의 연구가 있다.

2) 그 대표적인 예로 신숙정의 연구(1994)를 들 수 있다.

3) 최근 신숙정(2001)에 의해 청동기 시대 생계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시도된 예가 유일한 연구이다.

에 대한 발굴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서해안 지역의 생계 양식에 대한 연구 예가 늘어가고 있다.<sup>4)</sup> 서해안 지역의 패총 가운데는 청동기 시대 퇴적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생계 양식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중부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패총 유적 가운데 하나인 群山 駕島 貝塚에서 드러난 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생계 양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가도 패총의 자료는 서해안 지역에서 자연 유물의 분석이 행해진 몇몇 안되는 예 중의 하나로 이 지역 생계 양식의 특징 및 變化相에 대한 일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자료를 인근 노래섬 패총, 안면도 고남리 패총, 그리고 오이도 패총 등 다른 서해안 유적과 비교하고 또한 남해안 지역과 대비한다면 앞으로 서해안 지역의 생계 양식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II. 가도 패총의 생계 양식

### 1. 가도 패총

군산 앞바다에 위치한 동서 길이 1 km, 폭 300 m의 소규모 섬인 駕島에서는 총 5개소의 패총 유적이 발견, 조사되었는데 이 중 가도 A패총<sup>5)</sup>은 1993-94년에 걸쳐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유적으로 전기 신석기부터 역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친 패각층이 연속적, 또는 불연속적으로 퇴적되어 이루어진 대규모의 패총 유적이다. 몇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약보고가 있었으며(朴淳發 1995; 林尙澤 2001), 발굴 보고서도 최근 발간되었다(朴淳發 외 2001). 그러나 보고서 간행이 지연되고, 편집상의 오류로 패류 및 동물 자료 분석 결과가 보고서에서 누락되면서 발굴 당시 계획하였던 생계 양식 및 패총 機能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발굴과 분석 시점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패각층 시료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가도 패총의 신석기 중·후기, 그리고 청동기 후기 퇴적층에 보이는 생계 양식의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도 패총의 발굴, 특히 1993년 11-12월에 이루어진 1차 발굴은 通時的인 생계 양식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계획 하에 발굴 전략을 세우고 시료 채취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李俊貞

4) 이는 주로 안면도 고남리 유적에 대한 안덕임의 연구(1993a, b, 1996, 1999, An, D. I. 1991)에 의해 이루어졌다.

5) 가도 A패총이 정식 유적 명칭이나 가도 내의 나머지 네 유적이 규모가 작고 고고학적인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도 패총이라고 하면 가도 A패총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간략히 가도 패총이라고 명명하겠다.